

換差損으로 原油價 하락효과 半減

—消費國과 產油國 모두 불만—

달러貨의 强勢가 原因

현 재의 原油價格에 대해서 OPEC측은 낮은 상태이며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소비국측은 높은 상태이고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자의 주장이 달러貨의 강세로 다 옳은 말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게 현금의 국제석유시장의 이채로운 현상이다.

소비국의 不平

1983년 3월, OPEC가 그 기준가격을 배럴당 5달러나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국들에겐 현재 원유의 실질가격은 역사상 최고수준에 달해 있는 것이다. OPEC의 기준가격 29달러보다도 적어도 1달러이상 할인거래돼온 요즈음의 現物市場에서조차도 실질가격에 해당하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달러貨의 강세가 바로 그 원인이다. 지난해 국제무역으로 거래된

24MB/D의 원유의 거의 모두가 달러貨로 가격이 매겨졌으나, 同元료로부터 정제된 석유제품의 약 20%만이 달러貨로 지불한 구매국에게 팔렸을 뿐이다. 외환시장에서 달러貨가 점차로 오름세를 보이게 되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유가격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그리고 달러貨가 하락될 때까지는 아마도 이 불평은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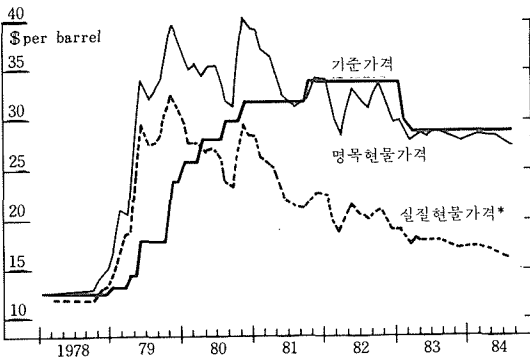
產油國의 우려

오늘날의 공급과잉하에서 석유회사 및 OPEC 국가들의 최대의 우려는 석유가격의 붕괴이다. 지난 8월, 英國政府마저도 석유가격인하에 반대함을 공식 천명했다. 사실 英國政府는 근시안적이어서, 낮은 석유가격이 영국경제에 가져다 줄 잠재적인 이익보다는 오히려 금년 石油稅收로 벌어들일 100억파운드(130억 달러)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역설스럽게도, 산유국정부 및 석유회사들이 방어하고 있는 석유가격安定性은, OPEC의 아라비안 라이트 기준가격 배럴당 29달러라는 식으로 달러貨로 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국들은 안정된 가격 대신에 사실상 오르는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OPEC마저도 그점은 바라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가격인하의 要點은, 수요증대를 위해 가격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 名目價格을 계속 억제시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유의 실질가격이 하락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석유수요를 계속 확실하게 높여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은 달러貨때문에 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원유의 실질가격이 하락돼 왔던 日本과 美國에서, 지난 해의 수요침체에서 벗어나 사실상 금년에는 확실히 수요가 늘었다. 금년 전반기 실

(表-1) 아라비안 라이트 價格



註: * 소비자 물가지수로 환산
 (資料) BP

적을 볼 때 美國은 작년 同期보다 약 6% 더 증가하고 日本은 약 8% 더 소비증가가 있었다. 그렇지만 OPEC 원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낮다. 美國은 OPEC 원유를 적게 사는 대신 가까운 멕시코와 캐나다로 부터의 구매를 더 선호하고 있고, 자체생산이 없는 日本은 OPEC의 唯一 최대구매국이지만 구매비율이 西유럽의 36%보다 적은 17%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表-2) 참조).

〈表-2〉 世界原油輸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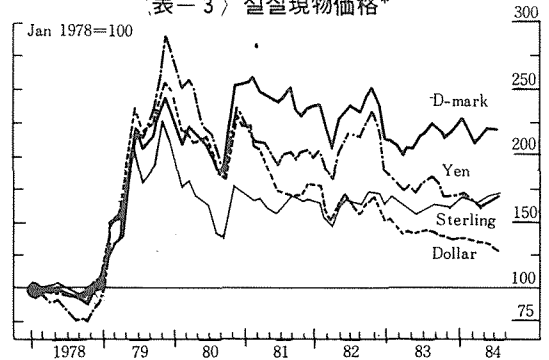
	1983 m b/d	Change 1983over 1982	1983 Share of total
United States	4,990	-1.0%	20.5%
Western Europe	8,665	-7.3%	35.6%
Japan	4,145	-0.2%	17.0%
Rest of world	6,555	-6.6%	26.9%
Total	24,355	-4.7%	100.0%

〈資料〉 BP

西유럽의 需要停滯

西유럽의 석유수요는 내내 정체상태에 있다.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7.3% 감소하였고, 금년 전반기에는 작년 동기보다 0.5% 이하가 늘었을 뿐이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유럽통화로 첫올때 석유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7월에 파운드貨로서 名目현물원유가격은 최고 기록인 배럴당 20.70파운드였다. 유럽의 소비정체의 또 다른 이유는 유럽경제가 세계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있고, 그들의 많은 경쟁국보다도 더욱 OPEC 석유에 대한 代替物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英國과 노르웨이는 그들 자신들의 北海석유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유럽 각국은 他에너지源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사실인 바, 그 이유는 비싼 달러貨가 유럽현지통화로 매겨져 있는 他에너지源에 대한 매력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4년 1/4분기에 西유럽의 전체에너지 소비는 예기치 않게 6% 증가했는데 天然가스 소비가 1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석유 소비는 미미한 증가를 보였을 뿐이다.

〈表-3〉 실질現物價格*



註: * 소비자 물가지수로 환산
〈資料〉 BP

이러한 낮은 석유소비증가는 OPEC와 석유회사 양측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OPEC가 분기별로 하는 수요전망을 낮게 잡아가게 됨으로써 회원국에 產油割當量을 고수토록 설득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일 그들이 생산할당량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과잉생산량 때문에 현물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우디의 기준가격이라는 구조는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쿼터擴大會議 임박

사우디의 야마니石油相은 자기네들의 생산上限이 금년 3/4분기에 평균 약 17.5~18MB/D에서 4/4분기에 19MB/D로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의 견해는 너무도 낙관적이어서, 외환부족에 시달려 더 많은 쿼터를 얻고자 하는 OPEC 회원국들에게 실망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 올 가을 초에 OPEC 石油相 간에 이미 생산쿼터확대회의를 개최하자는데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石油會社들 역시 곤란에 직면해 있다. 수요침체 및 달러貨 강세때문에 제일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精製利益이다. 유럽의 석유회사들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현재의 값싼 석유가 주는 利點에 관한 신문토론키사들을 쫓아오고 있는 차제에 휘발유 가격을 올려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THE ECONOMIST 84. 9. 1 자에서〉